

제주지역 MICE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주지역 K리조트를 중심으로-

(The Current State of MICE Industrial in Jeju Area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고 성 효* · 김 인 규** · 고 영 민***
(Sung-hyo Ko · In-kyu Kim · Young-min Ko)

목 차

- I. 서 론
- II. MICE 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III. 제주지역 MICE산업의 현황분석과 발전방향
- IV. 결 론

I. 서 론

서울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모임) 정상회의를 계기로 17대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된 MICE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MICE 산업은 회의(meeting), 인센티브(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회(exhibitions) 종합하여 일컫는 것으로, 영국, 호주 등 일부국가에서는 비즈니스 이벤트(business events) 산업으로 부르기도 한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 금호리조트(주) 기획팀 대리

*** 제주대학교 박사과정(공인회계사)

MICE산업은 주로 호텔이나 컨벤션업체에서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인식돼왔지만, 리조트산업도 단순 숙박과 주변관광지 관람으로 여행한다는 기존의 관광개념에서 벗어나, 컨벤션 산업 등의 MICE 산업으로 영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K리조트의 경우, 2010년도 객실 가동율이 80%를 웃도는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약 12억 정도로 매출액대비 수익성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휴양이나 여행의 개념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데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MICE산업은 2010년 기준으로 컨벤션 분야 128건, 57,827명 참가, 소비지출은 1,611억원의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센티브 분야는 151건, 14,828명 참가, 410억원 규모의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MICE 산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3,557억원, 부가가치효과는 무려 1,847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MICE산업이 리조트 산업에 도입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본 연구의 연구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리조트를 중심으로 MICE산업의 리조트 산업에의 도입효과를 경영분석기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K리조트의 4년간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파악한 후, 현재 시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MICE산업의 경제유발효과를 계량화하여 K리조트의 재무제표에 대입하여 보고,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MICE산업과 K리조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문헌적 연구에서는 국, 내외 관련논문, 재무관련 서적, 보도자료, 정기간행물,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분류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경영 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여 재무비율이 본 논문의 목적과 연구하고자 하는 재무비율에 부합하도록 재분류하여 논문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K리조트의 재무제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결산기일을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기타 재무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재무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공시 경영지표 기준에 맞게 각종 재무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MICE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MICE 산업의 개념과 특성

산업구조가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면서 과거에 별개로 존재했던 영역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루는 과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 기업, 민간 부문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체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회의 및 이와 병행하여 개최되는 전시 및 각종행사를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국제회의 산업은 전문화된 산업영역이 되고 있으며 MICE는 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exposition)의 약어로 개념적 중복이 되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산업의 크기를 확대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묶을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MICE산업의 정의를 각 분야별로 내리면, meeting은 국내의 모든 회의를 포함하며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국내회의까지 회의산업으로 정하는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다.

incentive travel은 기업회의에서 파생된 고수익의 보상관을 의미하며, 컨벤션과 인센티브가 통합된 conventive(convention and incentive; meeting & convention)의 형태로 보고 있다. 그리고 convention은 기존의 의미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전시를 수반한 국제회의로 규정하고 있다. exhibition은 무역전시를 포함하고 잠재적으로 회의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전시를 의미한다. 기업의 경우 참가업체로 또는 참관객으로 참가하는 전시들을 뜻하며, 국내협회의 경우에는 회의와 함께 운영하기 위한 전시조직, 공공부문의 경우 정보 또는 지역 전시 행사를 의미한다.

MICE 산업의 특성을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 관광산업 진흥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적 1차 효과로는 컨벤션 센터 관련 시설 건설에 따른 시설 투자 증대, 생산 및 고용 유발,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컨벤션 개최에 따른 참가자들의 소비지출 증대, 회의, 전시, 숙박, 유흥음식, 관광레저 등 관련 산업에서의 고용 및 소득증대와 외화 가득를 제고를 통한 지역의 세수 증대, 개최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 지역 특유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반영한 컨벤션 관련시설의 확충과 국제교류 및 친선의 확대를 통한 국제적인 컨벤션 개최지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컨벤션 개최지는 국가의

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며, 국가 간 민간의교를 확대함은 물론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개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시킨다.

2.2. 제주지역 MICE 산업의 조직 및 시설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리조트형 MICE 거점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제주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계스카우트총회, WHO¹⁾ 서태평양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국제회의 개최 세계38위, 아시아 8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최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CVB,²⁾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MICE산업과 관련 있는 조직들이 상호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컨벤션뷰로에서는 제주지역 MICE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에서 행사개최 시 내국인 참가자 1인당 10,000원, 외국인 참가자는 20,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제회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원과 개최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유치지원 분야는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국제회의의 관련 유치활동 및 현장실사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제주도 전략산업분야회의 및 기타 중소 규모로서 제주도 회의산업 육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의의 경우는 개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III. 제주지역 MICE산업의 현황분석과 발전방향

3.1. 제주지역 MICE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3.1.1. MICE산업의 현황³⁾

제주지역 MICE 관련 개최실적 조사 결과를 보면 컨벤션 부문이 128건에 총 57,827명이

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 컨벤션뷰로(convention & visitors bureau)

3) 제주지역 MICE 관련 개최실적 및 실태 조사 결과는 제주관광공사가 실시한 2009-2010 제주지역 MICE 산업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참가하였고, 인센티브 부문에는 151건에 14,828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1> 제주지역 MICE 유치실적

년도	구분	건수	전체참가자(명)	내외국인별(명)	
				내국인	외국인
2009.6	전체	279	72,665	내국인	51,143(73%)
~				외국인	19,512(27%)
2010.4	컨벤션	128	57,827	내국인	41,506(71.8%)
				외국인	16,321(28.2%)
	인센티브	151	14,828	내국인	11,637(78.5%)
				외국인	3,191(21.5%)

자료원 : 제주관광공사, MICE 현황보고서, 2010

제주지역 MICE 관련 컨벤션 개최실적은 주로 10월과 11월, 12월 등 4분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월과 2월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2> MICE산업 중 컨벤션 및 인센티브의 월별 개최실적

구분		09년 6월	09년 7월	09년 8월	09년 9월	09년 10월	09년 11월	09년 12월	10년 1월	10년 2월	10년 3월
개최 건수	컨벤션	16	7	8	9	22	20	19	3	4	7
개최 건수	인센티브	23	8	3	19	24	26	17	10	3	7

자료원 : 제주관광공사, MICE 현황보고서, 2010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MICE 관련 주최기관 및 단체의 유형을 분석하면 학회관련 개최 건수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정부/준 정부(30%), 기업(12%)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3> MICE 주최기관 및 단체 유형

구분	학회	정부/준정부	기업	협회	기타
점유율	48%	30%	12%	7%	3%

자료원 : 제주관광공사, MICE 현황보고서, 2010

3.1.2. MICE산업의 파급경로를 이용한 발전방향

제주지역 MICE 관련 컨벤션 및 인센티브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경로는 [그림3-1]과 같다.



[그림3-1] 제주지역 MICE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로

과급효과의 분석에는 지난 2008년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 연구하여 발표한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분석」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였다. 지역산업 연관표에서 일연의 연립방정식체계로 역행렬을 유도하면 아래의 식과 같다.

$$\begin{aligned} AX + F &= X \\ X - AX &= (F - M) \\ (I - A)X &= (F - M) \\ X &= (I - A)^{-1}(F - M) \end{aligned}$$

위에서 X는 지역산업 부문별 산출액 열「벡터」, I는 단위행렬 A는 지역투입계수 행렬, F는 지역최종수요 열「벡터」, M은 지역수입 열「벡터」, 위의 (I-A)를 레온티에프 행렬이라고 한다. $(I-A)^{-1}$ 를 생산유발계수행렬 또는 다부문 승수라고 하는데 역행렬 $(I-A)^{-1}$ 를 $(I-A)^{-1} = B = (bij)_{n \times n}$ 으로 표기하면 bij 는 j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I부문의 재화 또는 용역의 직간접 생산단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1단위 최종수요 충격(impact)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효과를 나타낸다.

MICE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의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최에 따른 소비지출이 최종수요의 한 항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운수 및 보관 도소매,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각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즉 수식은 $Q = (I - A)^{-1} \cdot F$ 가 되며, 여기서 Q는 신규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며, F는 투자금액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취업유발효과는 먼저 생산유발계수행렬에 노동계수(L)의 대각 행렬을 곱하여 고용유발계수행렬을 작성한다. 노동계수는 제주지역의 산업별 종사자 수를 산업별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만을 의미하지만, 고용유발계수는 생산의 과급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2) 지역경제 과급효과

MICE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은 관련 인사들의 대회 전후 소비지출 및 관련 투자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표3-4〉MICE 참가자 1인당 지출경비

구분	ICCA 발표자료
MICE 참가자 1인당 평균지출경비	2,487\$(2,785,440원)
	(2010년 10월 20일 환율 1,120원 적용)

자료원 : 제주관광공사, MICE 현황보고서, 2010

〈표3-5〉제주지역 MICE 개최에 따른 소비지출 증대

년도	구분	건수	전체참가자(명)	내외국인별(백만원)
2009.6	전체	279	72,665	202,375
~	컨벤션	128	57,827	161,073
2010.4	인센티브	151	14,828	41,302

자료원 : 제주관광공사, MICE 현황보고서, 2010

대회 참가자의 소비지출증대에 따른 지역경제과급효과를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로 구분하여 계측하였다. 그 결과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1년 여간 제주에서 개최된 MICE산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3,55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48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3-6〉 제주지역 MICE산업의 지역경제과급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컨벤션	283,166	147,059
인센티브	72,608	37,708
MICE합계	355,774	184,767

자료원 : 제주관광공사, MICE 현황보고서, 2010

3.2. K리조트 MICE산업의 재무분석 사례

3.2.1. K리조트의 현황

국내 리조트 산업은 1980년대까지는 스키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리조트 산업을 주도 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리조트 산업에 적극 참여했다. K리조트도 1989년 (주)금호개발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리조트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K그룹의 경우, 리조트 산업에 진출했던 것은 레저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레저패턴이 단순숙박 관광형에서 체류휴양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구비한 대형 리조트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리조트는 2002년 5월 개장하고, 2007년 5월에 증축개장하면서 현재 총 242 객실과 수영장, 사우나 및 아쿠아나, 노래방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리조트는 최초 설계부터 호텔식 리조트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MICE산업을 도입하기에 가장 알맞은 입지와 규모 및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1년 상반기까지 매출액도 전년대비 100% 이상의 매출실적증가를 달성하였다.

<표3-7> 제주리조트 시설 현황

객실 현황			연회 / 세미나실		부대업장
VIP	80명	2실	구관: 유니퍼(1층)	1실/100명	구관: 직원식당(1차 운영시 한식당)
로얄 스위트	70명	2실	메이플(지하)	1실/100명	
로얄 스위트 디럭스(5/6층)	54명	6실	올리브(지하)	1실/20명	
스위트	27명	132실	신관: 데포달(1층)	1실/270명	신관: 한식당(128석)- 최대 160석까지 가능
스위트 디럭스(5/6층)	29명	52실	오키드(1층)	1실/120명	슈퍼마켓(GS25시, 60평)
패밀리	22명	8실	데이지(1층)	1실/60명	아쿠아나(남/녀 락카 각 198개)
	28명	10실		총 6실 (670명)	기타(스넥/호프, 단란주점, 노래방, PC존)
	18명	30실			
총 객실수		242실			임대업장 (위게임존, 특산품점, 비즈니스센터)

자료원 : 금호리조트(주) 금호제주리조트 소개자료 2010

현재는 단체 관광객 및 일반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만, 객실 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있어 제주리조트의 시설로는 매출액의 한계가 온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시설적인 면에서 MICE 산업유치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발전방향을 새롭게 수립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2.2. K리조트의 재무분석

비율이 나타내는 의미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 유동성비율(liquidity ratio): 짧은 기한(보통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채무를 지급 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
-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부채성 비율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와 타인자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비율
- 활동성비율(activity ratio): 자산의 물리적 이용도를 측정하는 비율
- 수익성비율(profitability ratio): 경영의 총괄적인 효율성의 결과를 매출에 대한 수익이나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나타내는 비율

<표3-8>K리조트(주)제주의 년도 별 약식 재무상태표4)

(단위 : 백만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자산				
유동자산	944	565	353	406
당좌자산	751	450	284	300
재고자산	192	114	68	105
비유동자산	38,594	21,225	30,768	30,730
자산총계	39,538	32,790	31,122	31,136
부채				
유동부채	640	750	432	616
비유동부채	13,008	16,863	23,573	30,043
부채총계	13,649	17,916	24,005	30,659
자본				
자본총계	8,598	13,944	16,886	20,182

4)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총계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지점간의 예수보증금(콘도분양대)계 정처리 때문으로 위의 재무상태표에서는 예수보증금(콘도분양)계정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표3-9>K리조트(주)제주의 년도 별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매출액	3,956	6,889	7,730	9,052
매출원가	3,340	5,437	5,424	6,111
매출총이익	615	1,452	2,306	2,934
판매비와관리비	394	553	541	634
영업이익	221,906	899	1,765	2,300
영업외비용	1,200	2	8	24
영업외수익	637	8	1	
경상이익	-977	905	1,757	2,276
법인세비용		175	362	476
당기순이익	-977	730	1,395	1,799

<표3-10>재무분석('07~10)

구분	비율	07년	08년	09년	10년
유동성비율	유동비율	147.4%	75.2%	81.8%	65.9%
	당좌비율	117.33%	59.99%	65.83%	48.79%
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158.74%	126.32%	142.16%	151.91%
	이자보상비율	320%	30%	60%	100%
활동성비율	재고자산 회전율	20.6	59.9	112.0	85.3
	매출채권회전율	5.3	15.3	27.2	30.1
	총자산회전율	0.1	0.21	0.25	0.29
수익성율	총지분 순이익률	-2.47%	2.23%	4.48%	5.78%
	매출액 순이익률	-24.2%	10.6%	18.0%	19.88%
	자기자본 순이익률	-11.37%	5.24%	8.26%	8.92%

3.2.3. K리조트 MICE 산업 도입효과

이 절에서는 K리조트의 11년도~15년도 5개년의 재무제표를 추정하고, 추정된 수치를 재무분석한다. 그리고, MICE산업을 도입했을 때의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도입전의 재무제표와 도입 후의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하여 재무분석비율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서 K리조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3-11〉K리조트의 추정손익계산서('11년~'1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매출액	9,750	10,254	10,783	11,339	11,924
-객실	5,941	6,563	6,901	7,257	7,631
객실가동률	86.3%	88.4%	90.5%	92.8%	94.7%
-부대업장	3,397	3,251	3,418	3,594	3,780
-아쿠아나	412	441	464	488	513
매출원가	7,255	7,630	8,023	8,438	8,873
매출총이익	2,495	2,624	2,760	2,901	3,051
판관비	732	718	755	794	835
영업이익	1,763	1,907	2,005	2,108	2,216
영업외비용	1,044	1,045	1,046	1,048	1,049
경상이익	719	861	958	1,060	1,167
법인세	178	210	231	253	277
당기순이익	541	652	727	807	890

손익계산서 추정 시 객실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평균 객실가동률 증가분인 2.1%를 적용하였고, 물가상승률 3%적용 판관비와관리비는 매출액대비 평균 점유율인 7%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자비용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이자율인3.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3-12〉K리조트의 추정재무상태표('11년~'1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유동자산	438	460	484	509	535
당좌자산	324	341	358	377	396
재고자산	114	120	126	132	139
비유동자산	30,422	30,118	29,817	29,518	29,223
자산총계	30,860	30,578	30,301	30,028	29,759
유동부채	664	698	734	772	812
비유동부채	30,044	30,044	30,044	30,044	30,044
부채총계	30,708	30,742	30,778	30,816	30,856
자본총계	20,723	21,375	22,102	22,909	23,799

추정의 근거는 매출액 대비 비율로서 추정하였다. 2010년도 매출액 대비하여 유동자산은 4.49%, 비유동자산은 95.51%로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추정 매출에 반영하여 자산의 분포를 추정하였다.

부채의 경우 유동부채 역시 매출액 대비하여 6.81% 분포비율로서 산출하였고 비유동부채는 본점과지점간의 회계처리에서 예수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10년 실적을 그대로 대입하였다. 그리고 리조트 산업에서 비유동부채 대부분이 예수보증금이며, 만기상환이 10년에서 15년 상품이므로 07년도에 증축개장을 감안하면,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자본의 경우도 주식의 분포와 이동이 본점과 지점 간에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단순히 당기순이익만을 자본에 이익잉여금으로만 산입하여 추정하였다.

<표3-13>추정재무제표 비율분석('11년~'15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유동비율	66%	66%	66%	66%	66%
당좌비율	49%	49%	49%	49%	49%
부채비율	124.8%	104.2%	88.9%	76.5%	67.3%
이자보상비율	672.6%	712.5%	736.5%	811.9%	786.9%
재고자산회전율	85.55	85.58	85.58	85.58	85.58
매출채권회전율	30.11	30.11	30.11	30.11	30.11
총자산회전율	0.49	0.52	0.55	0.59	0.61
총자본순이익률	7.37%	8.40%	8.89%	9.35%	9.79%
매출액순이익률	5.55%	6.36%	6.75%	7.11%	7.47%
자기자본순이익률	2.61%	3.05%	3.29%	3.52%	3.74%

제주지역 지방자치단체, 호텔, 리조트 등의 전체 수용인원은 19,263명이다. 이중 K제주리조트가 670명을 수용한다, 이를 근거로 수용비율인 3.48%를 산출해 낸 후 2010 제주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컨벤션 분야의 참가자인원 57,827명에 수용비율을 반영하여 추정수용인원 2,011명을 산출해 냈다. 그리고 ICCA에서 발표한 MICE 참가자 1인당 지출경비인 2,478\$ 반영하여, 매출증대효과로 약 56억을 산출해 냈다.

그리고 K제주리조트의 2010년 재무제표에 매출액 점유율 반영하여 11년도에 56억을 배부시켰고 12년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출액을 3%씩 증가하여 추정매출액을 도출하였다.

<표3-14>K제주리조트의 매출액 점유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점유율	MICE 도입 시 매출증대 효과
매출액	9,116	100%	5,602
-객실	5,836	64.00%	3,585
-부대업장	2,883	31.70%	1,776
-아쿠아나	396	4.30%	241

각 부문별로 대입시킨 결과, 객실부문 3,585백만원, 부대업장 1,776백만원, 아쿠아나 241백만원 매출증대 효과가 유발 되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여 매출증대에 반영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2011년 매출액은 약 150억, 2012년 매출액은 약 160억, 2013년 매출액은 약167억, 2014년 매출액은 약 179억, 2015년 매출액은 약 182억의 추정결과가 나왔고 MICE산업의 매출증대효과는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분석하여 그 결과 값으로 입증하도록 하겠다.

<표3-15>MICE 산업 도입 시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매출액	15,352	16,024	16,726	17,991	18,229
-객실	9,526	10,255	10,704	11,174	11,666
-부대업장	5,173	5,080	5,302	5,535	5,779
-아쿠아나	653	689	719	751	784
매출원가	7,473	7,858	8,264	8,691	9,140
매출총이익	7,879	8,166	8,462	8,770	9,090
판관비	1,075	1,122	1,171	1,222	1,276
영업이익	6,805	7,044	7,291	7,547	7,813
영업외비용	1,057	1,059	1,060	1,062	1,064
경상이익	5,748	5,985	6,231	6,485	6,750
법인세	1,284	1,337	1,391	1,447	1,505
당기순이익	4,463	4,649	4,840	5,039	5,245

<표3-16>MICE 산업 도입 시 추정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자산					
유동자산	898	935	973	1,012	1,054
당좌자산	784	815	847	880	914
채고자산	114	120	126	133	139
비유동자산	30,422	30,118	29,817	29,518	29,223
자산총계	31,320	31,052	30,789	30,531	30,277
부채					
유동부채	664	698	734	772	812
비유동부채	30,044	30,044	30,044	30,044	30,044
부채총계	30,708	30,742	30,778	30,816	30,856
자본					
자본총계	20,723	21,375	22,102	22,909	23,799

추정 재무상태표를 보면 매출액 상승으로 인한 당좌자산의 증가와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를 볼 수 있다.

<표3-17>재무분석(MICE산업 도입 전 후 비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유동비율	후	110%	109%	109%	108%	108%
	전	66%	66%	66%	66%	66%
	증감	+44%	+44%	+44%	+44%	+44%
당좌비율	후	93%	92%	92%	91%	91%
	전	49%	49%	49%	49%	49%
	증감	+44%	+43%	+43%	+42%	+42%
부채비율	후	126.1%	106.3%	91.4%	79.7%	70.4%
	전	124.8%	104.2%	88.9%	76.5%	67.3%
	증감	+1.3%	+2.1%	+2.5%	+3.2%	+3.1%
이자보상 비율	후	643.8%	665.4%	687.7%	710.7%	734.6%
	전	672.6%	712.5%	736.5%	811.9%	786.9%
	증감	-28.8%	-47.1%	-48.8%	-101.2%	-52.3%

재고자산 회전율	후	85.55	85.55	85.55	85.55	85.55
	전	85.55	85.55	85.55	85.55	85.55
	증감	0	0	0	0	0
매출채권 회전율	후	15.83	15.93	16.03	16.12	16.23
	전	30.11	30.11	30.11	30.11	30.11
	증감	-14.28	-14.18	-14.08	-13.99	-13.88
총자산 회전율	후	0.49	0.51	0.54	0.57	0.60
	전	0.49	0.52	0.55	0.59	0.61
	증감	0	-0.01	-0.01	-0.02	-0.01
총자본 순이익률	후	37.44%	37.35%	37.25%	37.14%	37.03%
	전	7.37%	8.40%	8.89%	9.35%	9.79%
	증감	+30.07%	+28.95%	+28.36%	+27.79%	+27.24%
매출액 순이익률	후	29.07%	29.01%	28.94%	28.86%	28.77%
	전	5.55%	6.36%	6.75%	7.11%	7.47%
	증감	+23.52%	+22.65%	+22.19%	+21.75%	+21.30%
자기자본 순이익률	후	18.11%	15.87%	14.18%	12.86%	11.81%
	전	2.61%	3.05%	3.29%	3.52%	3.74%
	증감	+15.5%	+12.82%	+10.89%	+9.34%	+8.07%

① 유동성비율

유동비율은 MICE 산업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44%씩 증가하였다. 이는 MICE 산업의 도입으로 인해 단기부채능력이 향상되었고, 유동성이 좋아졌다고 판단된다. 당좌비율 역시, MICE산업 도입 후 40%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당좌비율이 40%가 증가 했다는 것은 재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MICE 산업의 도입효과로 인하여 재고자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② 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은 5개년도 증감을 보면 1.3%~3.2%까지 증가된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유동부채의 증가로 타인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자보상비율 역시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이자비용의 증가율이 영업이익의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절대적인 영업이익의 차이는 MICE산업 도입 후 매우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③ 활동성비율

재고자산회전율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의 증가율과 재고자산의 증가율이 같음을 의미하며, 리조트산업 특성상 재고자산은 원재료, 저장품, 상품, 소모품등 유사계정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원가투입되거나 상품화되어 판매된다고 볼 수 있다. MICE 산업 도입이 매출액을 상승시켰지만 매출에 수반되는 재고자산도 그만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매출채권회전율을 보면, 당좌자산의 증가로 인해 회전율이 MICE산업 도입전보다 감소하였지만 이는 유동성 증가 측면에서 도입효과를 충족시킨다고 판단된다. 총자산회전율을 보면, 재무상태표상에 총자산은 당좌자산의 증가와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가비 계상에 따른 감소가 나타난다. 비유동자산은 MICE 산업의 도입과는 관련이 없는 계정으로 MICE산업의 도입은 당좌자산을 증가시켜 도입 전과 거의 비슷한 비율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④ 수익성비율

MICE산업의 효과는 수익성 비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총자본순이익률은 5개년도 30%이상 증가되었으며, 매출액순이익률도 5개년도 모두 20%이상의 증가를 보이며, 자기자본순이익률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해 수익성이 크게 향상 되었다. 수익성비율은 기업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최종 결과물이다. 이는 기업의 모든 활동이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에 대한 비율로 기업이 가장 중요 시 해야 할 비율이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리조트 산업에서 K리조트가 이미 매출액에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수익창출의 영업전략 방안으로 MICE산업을 도입하여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분석하여 K리조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K리조트의 재무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리조트의 추정재무제표에 MICE 산업을 도입하여 유동성비율을 산출한 결과, 유동성이 매우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K리조트의 도입 전 유동성비율은 5개년 동안 66% 수준에 머물렀지만 MICE산업 도입 후의 유동성은 약 110%정도로 상승하여 약 44%의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당좌비율이 증가하여 단기부채능력이 매우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K리조트의 추정재무제표에 MICE산업을 도입하여 레버리지비율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은 소폭 감소하여서,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지만, 부채비율의 감소원인은 매출액의 증가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상승하면서 자기자본이 증가되어 부채비율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차입금 등의 타인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경영을 하여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K리조트의 추정재무제표에 MICE산업을 도입하여 활동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총자산회전율은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의 증가비율과 재고자산의 증가비율의 일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며, 리조트 산업의 특성상 많은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의 증가비율만큼 당좌자산의 외상매출금도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총자산회전율 또한 MICE산업의 도입이 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넷째, K리조트의 추정재무제표에 MICE산업을 도입하여 수익성비율율을 분석한 결과, K리조트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수익성이라고 판단된다. 총자본순이익률은 11년~15년 5개년 동안 각각 약 30% 정도의 수익률 증가를 가져왔고, 매출액순이익률은 20%이상의 수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도 약 10%이상의 수익률 향상의 결과가 도출 되었다. 수익성비율의 경우 기업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세 가지 비율은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부분적으로 고려하지만 수익성 비율은 K리조트의 MICE산업의 도입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K리조트는 유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 활동성비율, 수익성비율 모두 MICE산업을 도입한 후 도입 전 보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으며, 향후의 연구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K리조트에서 MICE산업에 대한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ICCA에서 발표된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오류로 인한 비율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분석이 대상을 K리조트의 제주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여 본점과 지점간의 회계처리 제외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자본 및 부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셋째, K리조트의 공유제 즉, 분양매출과 분양원가, 그리고 부채계정에 예수보증금을 제외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이는 MICE산업이 업장운영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으나 실질적으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K리조트와 MICE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과거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추정하고 추정한 재무제표에 MICE산업의 도입효과를 재무제표상의 수치의 변화로만 분석하는 것이므로 한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분석적 연구의 수행과 연구범위의 확장이나 다각적인 관점에서 영향요인을 찾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금호리조트(주), 감사보고서, 2007, 2008, 2009, 2010.
금호리조트(주), 업무자료, 2010.
금호리조트(주), 재무손익보고, 2011.
금호리조트(주), 전략기획자료, 2010.
금호리조트(주), 회사경영정보, 2009.
김재규(2002), “리조트기업의 경영분석을 통한 수익성 증대방안”,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학현(2006), “리조트기업의 재무분석을 통한 수익성 증대방안”,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
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식·박종원(2009), “제2판 재무관리”, 다산출판사.
신동일(2010), “제주지역 컨벤션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주발전연구원.
오용규(1997), “실증적회계이론”, 형설출판사.
장영광(1997), “현대경영분석”, 무역경영사.
“global MICE insight 2월호”,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2011.
“global MICE insight 3월호”,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2011.
“international MICE in korea 2010 to 2019”, 한국관광공사, 2011.